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서향



새 정부의 출범을 보르남짓 앞두고 한 사회불민자의 방화에 의해 불타버린 국보 제1호 송래문의 처참한 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를 안타깝고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송래문 소설은 이러한 희망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왜 '글로벌'인가?

일어난지도 거의 닷새가 지나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취할 때는 아닌지, 과감히 국면전환을 제의하고 싶다.

인드를 갖고 있는 폭넓은 국제적 경험으로 통상과 자원외교 수행의 적격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계적('글로벌') 기준은 어떤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중요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꼼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방청이 나서서 중요 문화재와 관련시설에 대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화재 진압 훈련을 한다.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 이룬 난 역사·문화 시설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이들 시설에 대해 가연성 물품의 반입금지 등 일본보다 더 엄격한 화재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달 28일 이명박 당선인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지명 발표할 때에도 총리 인선의 첫 번째 덕목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꼽았으며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해 "누구보다도 글로벌 마

세계의 일,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가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와 후진국에 대한 공적경제원조(ODA) 제공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계와 통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일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제 문화의 관여와 개입에 있어서도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못뻗는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11.0%로 전국 꼴찌였다.

광주시도 전남도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7.8%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편만 아니라 전국 평균 53.9%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대부분은 교부세나 재정보조금 등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빈약한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재정자립도만으로 지역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지역민의 삶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선심·과시성 행사, 불필요한 인력 증원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스스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친환경 '메카' 전남 농산물 신뢰도 높여야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전국 인증면적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6만5천619ha로 전국 12만2천882ha의 53%에 이르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무심게 점령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생산하는 '생명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엄청난 품질관리와 검증 등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격을 최대한 낮출 때 친환경농업은 정착될 수 있다.

경쟁은 치열하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며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전체 경지면적의 20.9% 수준인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올해 25% 선인 7만9천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은 '생명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엄청난 품질관리와 검증 등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격을 최대한 낮출 때 친환경농업은 정착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얼마 전 멕시코 남부 유카탄반도의 메리다라는 곳을 방문했다. 지난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해 '에네켄'이란 방송이 나간 배경이다.

직해 활동하고 있다. 그 단체를 방문해 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보았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멕시코의 한인 후예들

선박의 밧줄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용설란이라는 가시나무를 자르는 일인데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손에 가시가 박히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중노동이다.

리다에 '한-멕 우정 병원'을 세웠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곳인데 자기 민족이 살고 있다하여 병원을 지어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기고



문병민

지금부터 89년 전인 1919년 2월 8일, 일제 강점기 일본 통치하에서는 600여명의 재일 유학생들이 모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순수한 애국심으로 일제침략의 부당성과 식민통치의 아만성을 규탄하는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영암 출신 독립운동가 최규창 선생을 기리며

조직,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최규창 선생의 탄신 100주년(1908년 2월 9일 출생)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과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는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일정에 체포돼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최 선생은 3월에 걸쳐 6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는 등 불굴의 애국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쳤다.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 고장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의 삶과 생애를 재조명하고 그 분들의 위훈을 기리고 있다.

매칠 뒤면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이 있다면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할 것이다.

안전불감증 없애려면 평소 소방교육 중요

새해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소방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따금 내리쬐는 햇볕이 봄을 알리는 신호인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지난해 광주시소방본부에서는 어린이 소방체험반과 일반인 소방안전반, 산업체 구급실무반 등 3천566명에게 소방·재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전남 농촌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했으면

매칠엔 경남도에서 신성한 소식을 들었다.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촌의 임신부들을 위해 특수 차량을 이용,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와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진료와 검사비도 따로 예산을 마련할 거라고 한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Daily (光日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